

광주일보·시교육청 주최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

내달 18일부터 3개월 대장정

# 생각하면서 읽고 감상문 직접 써라

지난해 가을 시작된 광주일보·광주시교육청 주최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가 3회째를 맞는다. 이번 대회는 9월17일 접수가 마감되며, 9월18일부터 12월18일까지 3개월의 독서마라톤 대장정에 돌입한다.

1회 대회에는 8천718명(학생 7천807명·일반 911명)이 참가해 1천547명(학생 1천305명·일반 242명)이 완주했으며 2회 대회는 1만2천322명이 참가, 2천275명이 완주한 것으로 집계돼 질적, 양적 성장세를 보였다.

## ■ '독서마라톤 대회' 좋은 점수 얻는 법

### 조금씩이라도 매일 책 읽는 습관 중요 책 1쪽→1m 환산... 일지 꼼꼼히 체크

#### ◇많이 읽으면 1위?

대회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독서마라톤 개최 의도가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가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독서를 했으며, 감상문의 내용은 충실한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는지, 단체의 경우 골고루 책을 읽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각 부문별 기준 쪽수를 완주하는 것이 기본이며, 목표 쪽수를 넘어 많이 읽은 것은 심사에서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5천km 부문에 참가한 학생이 7천, 8천쪽을 읽었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진 않는다는 얘기다. 목표 쪽수인 5천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읽었는가가 평가한다. 대회 개최기간인 3개월 동안 5천쪽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300쪽 짜리 책을 1주일에 한 권 가량 읽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감상문 대필 티나오

특히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경우 학부모가 대신 감상문을 써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최대한 어린이가 쓴 것처럼 위장할 테지만, 심사위원들은 '다 안다'. 감점요인일 뿐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책을 읽고, 책의 내용과 감상을 적절히 섞어 감상문을 직접 쓰는 연습이 중요하다. 글자를 슬슬 읽는 독서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일선 학교 사서교사, 국어교사 등

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이 1달 반 가량을 심사한다. 이들은 완주한 참가자 2천여명의 독서일지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일지만 봐도 참가자가 성실하게 읽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설명이다. 1회 대회에 비해 양질의 감상문이 늘었고, 독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인지 예상보다 진지하게 대회에 임하는 참가자들이 많다고 한다. 1~3위간 점수차는 소수점 이하에 불과할 정도다.

#### ◇단체는 팀워크 중요

단체나 가족들은 하프(2만1천97쪽)코스, 풀(4만2천195쪽)코스에 참가한다. 단체팀을 심사할 때 중요한 기준은 구성원간 팀워크다. 5명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읽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명 중 3명이 주로 읽고 2명은 참가율이 저조하다면, 감점요인이다. 물론, 단체의 경우도 대필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독서를 통해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독서마라톤의 숨은 매력이다. 팀 전체의 독서마라톤 진행속도를 팀원이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간 독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같은 책을 돌려 읽고 다른 내용의 감상문을 쓴다거나, 토론했던 내용을 감상문에 적으면 독서효과가 배가된다. 가족 참가자의 경우 대회 완주를 통해 동질감과 끈끈한 사랑을 확인했다는 대회 참가후기가 많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는 광주일보가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벌이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독서에 접목한 것. 참가자가 읽은 책 1쪽을 1m로 환산해 부문별 완주 여부로 입상자를 가린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대회 추선회(광주제일고 사서교사) 실무추진위원장으로 부터 들어봤다.



'독서의 계절'이 왔다. 광주일보와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하는 '제3회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가 9월18일부터 3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대회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한 독서습관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조선대 치대, 치과산업 메카 발돋움

노인 구강질환 연구센터 등 선정

4개 사업단 국비 285억 지원 받아

조선대 치대가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경쟁력 제고에 날개를 달았다.

조선대 치대에서 운영 중인 '노인구강질환케어연구센터'(센터장 윤정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08년도 기초과학연구센터(MRC·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사업에 선정돼 9년간 80억8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노인구강질환케어연구센터는 구강조직 노화기전을 확립하고 노화 구강 및 골조직의 연계성 확립과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고령화사회 복지향상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서 2006년에는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지역 혁신센터'(센터장 강동완)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센터(RIS)에 선정돼 2016년까지 10년간 113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같은 해에 국제 수준의 고급 치과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첨단치과의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단장 김동기)은 교과부의 BK21 사업에 선정돼 2012년까지 7년 동안 52억3천만여원을 지원받는다.

또 치대 '치의공인력양성사업단'(단장 강동완)은 지난 2004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에 선정돼 2009년까지 5년 동안 39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조선대 치대 내의 4개 사업단이 유치한 국책사업비만도 285억원에 달한다.

조선대 치대는 이들 사업을 통해 광주시에 치과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고급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는 2014년까지 '세계 10위권 치과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치과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선대 치대는 2009년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치대 건물을 증축, 9월 26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광주과기원 '光 기술' 국가 연구센터 선정

교과부, 7년간 150억원 지원

광주과학기술원 '극한 광응용 기술센터'(센터장 노도영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008년도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사업에 선정돼 최장 7년간 150억여원을 지원받는다.

NCRC사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대규모 융합과학기술의 연구를 수행하고 세계적 수준의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최장 7년까지 연간 20억~2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광주과기원을 포함해 전국 7곳의 국가핵심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극한 광응용 기술센터'는 나노-바이오 물질의 원자 또는 분자 단위의 현상을 시

공간 영역에서 탐사하고 응용하는 기술을 주로 연구하게 된다. 극한 광응용 기술은 물리 및 화학 등 기초과학을 비롯해 에너지, 나노, 바이오 등 응용과학 분야의 연구용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효율의 에너지, 나노, 바이오 산업에 응용될 수 있어 산업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도영 교수는 "미래 신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극미세 세계를 초고속으로 연구하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며 "극한 성질을 갖는 'X선-극외외선-가시광선' 등의 광원과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나노·바이오 기술 등 응용기술에 이를 융합해 실용적인 광응용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 센터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한문 지도사 자격 연수생 모집

광주여대 내달 5일부터 수강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이 2008년도 제7기 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을 모집한다.

연수기간은 오는 9월5일부터 2009년 2월27일까지 6개월이며 수업시간은 매주 금·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다.

고흥 풍양중 교장을 지낸 선병공(69·사진) 씨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연수는 한문교육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의 한문학과 4년 교육과정을 간추려 진행한다. 교육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 기회와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물리치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건강이 재삼합니다!

활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E, 칼슘, 인, 마그네슘 등 필수영양소 보강
- 과일, 눈의 피로, 기미, 주근깨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 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E
- 마그네슘, 인, 칼슘, 칼륨, 칼슘, 칼슘, 칼슘

비타민 C 1200mg  
1일 2정이면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

제품문의 080-022-1010(수신자 부담) www.aronamin.com

\*1일 2회 복용하세요